에이즈 보도의 진실과 거짓

안종주 / 한겨레신문 심의위원

신문과 방송 등 매스컴은 작은 지면이나 짧은 화면이라 할지라도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전달매체이다. 진실 보도와 여론 수렴, 사회적 비판 감시 및 계도 기능 등을 충실히 수행할 때는 이보다 더 훌륭한 전달도구를 찾기 어렵지만 반대로 오보나 왜곡 보도를 할 경우 사회에 끼치는 해악은 매우 크다.

매스컴의 오보나 왜곡 보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은 막대하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왜곡보도는 감염인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다.
에이즈에 대한 보도는 신중해야 하며 왜곡보도를 막기위한 언론에 대한 시민단체의 감시와 언론자체의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 나라에서도 1981년부터 외신을 통해 간혹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에 관한 이야기가 일반에게 전달되기 시작했다. 1985년 첫 감염자가 발생한 뒤부터 에이즈에 관한 본격적인 보도가 이루어져 1988년부터는 봇물이 터지듯 마구 쏟아져 나왔다. 이 때부터 잘못된 보도 등으로 오도된 여론을 형성하기도 했으며 이런 여론을 여과 없이 보도해 일부 여성단체나 소비자단체는 대한민국을 드나드는 모든 외국인에게 강제검사를 할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감염자나 환자가 거리를 활보하면서 마구 에이즈를 퍼트리지 않도록 이들을 집단수용시설에 가두어 둘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아무런 증상이 없는 일반 감염인도 환자로 보도해 이들의 주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감시를 게을리 해 이들이 잠적했다고 보건당국을 몰아치기도 했다.

지금까지 에이즈와 관련한 오보 또는 왜곡 보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1985년 H일보가 11월9일자에 1면 7단 기사로 보도했던 'AIDS 증세환자 첫 발생' 기사이다. 1988년 2월22일자 중앙일보는 'AIDS 환자 국내 첫 발생, 지난 6월 귀국 30대 외항선원'이란 제목으로 한국인 에이즈 환자 첫 발생을 대서특필했다. 이는 한마디로 H일보 보도가 오보임을 증명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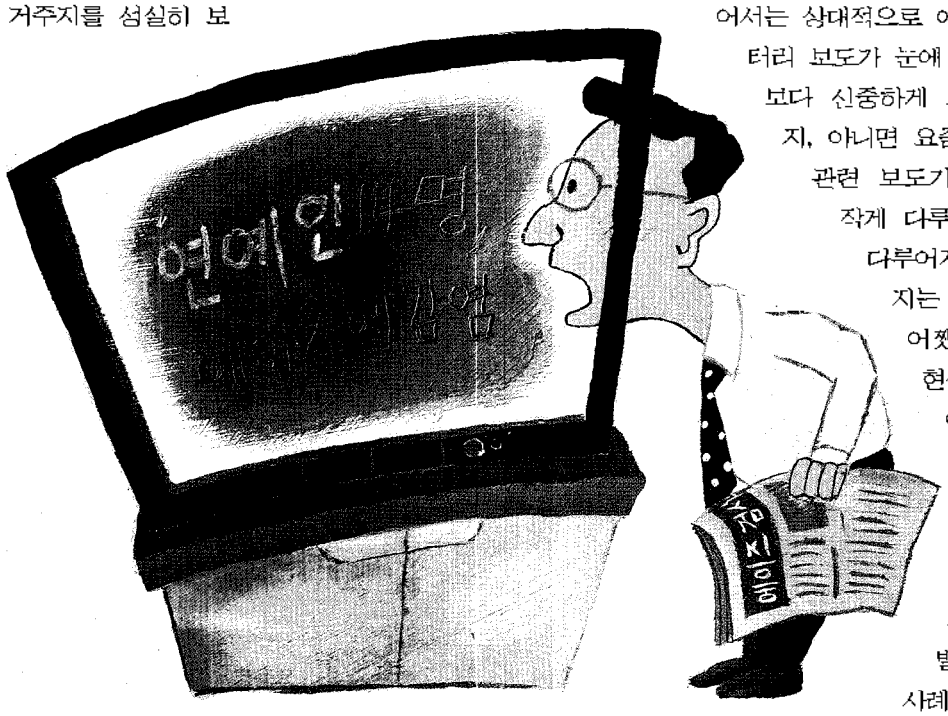
90년대 들어서도 대형 오보 사건이 끊이질 않았다. 국내 최대 부수를 자랑하는 ㅈ일보는 사회면 머릿기사로 '국내 일선 보건소, 에이즈 검사 90%가 엉터리'라고 놀라운 내용을 보도했다. 당시 석간신문인 ㄱ일보는 이 기사를 사실로 믿고 보건당국의 검사능력이 형편없음을 개탄하는 사설을 실었다. 보건소에서 1차 검사(엘리자 테스트)에서 양성으로 드러난 혈청 샘플을 국립보건원에 보내 2차 정밀검사(웨스턴 블롯)를 맡긴 결과 이 가운데 10%만 진짜 양성으로 판명됐고 나머지 90%는 음성으로 판명된 사실을 놓고 보건소 검사의 90%는 엉터리라고 ㅈ일보 기자가 특종이라며 크게 보도한 것이다. 이 기자와 이 신문의 간부, 구성원들은 한결같이 검사에는 항상 민감도와 특이도 등 정확도가 서로 다르며 이에 따라 위양성이나 위음성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검사의 기본적인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것은 이런 엄

청난 오보가 에이즈 검사의 구체적인 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끼칠 영향을 고려해 보건당국이 위양성을 그 기자에게 자세하게 아무리 설명해도 다른 신문 기자들은 모두들 다 이해하는데 이 기자만은 자신의 보도가 옳은 것이라고 우겼다는 것이다. 자신의 보도가 옳았다면 후속보도는 물론이고 엉터리 검사를 하고 있는 일선 보건소장들을 모두 갈아치우고 검사장비도 모두 교체해야할 텐데 그런 것을 신문에는 보도하지 않고 이 기사만 달랑 다루고 말았다는 것이다.

극히 최근까지 이루어진 에이즈 관련 오보 및 왜곡보도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에이즈 감염자나 환자를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이 다른 곳으로 옮길 때마다 즉각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에이즈를 마구 퍼트리기 위한 행동으로 매도한다. 자신의 거주지를 성실히 보건당국에 알리면 에이즈를 퍼트릴 염려가 없고 알리지 않으면 퍼트릴 위험이 있다는 언론의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궁금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 의원이 지방자치단체를 돌며 벌인 국정감사장에서도 주소지가 파악되지 않은 감염자가 있다는 사실을 두고 지자체의 감염인 관리가 허술하다고 질타했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 국회의원의 지적을 매우 날카로운 추궁인 것처럼 보도했다.

요즘은 뜸하기는 하지만 에이즈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관한 보도는 뻥튀기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미 80년대 후반부터 보도된 백신 또는 치료제 개발 기사를 보면 적어도 지금에는 많은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돼 나왔어야 했다.

에이즈와 관련한 대형오보와 황당한 왜곡보도가 심심찮게 등장하던 80년대와 90년대 중반까지와는 달리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들어서는 상대적으로 에이즈 관련 엉터리 보도가 눈에 덜 띈다. 옛날보다 신중하게 보도하는 탓인지, 아니면 요즘 들어 에이즈 관련 보도가 과거에 비해 작게 다루어지거나 자주 다루어지지 않는 탓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어쨌든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아직 감염자와 환자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치료제와 백신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그리



고 흥미 위주로 에이즈 문제에 접근해 왜곡보도하는 사례도 여전하다.

올해 최악의 에이즈 관련 보도는 지금은 프로그램이 폐지된 '피자(피디와 기자의 합성어)의 아침'에서 방송한 연예인 에이즈 실태 폭로라고 할 수 있다. 6월19일 방영된 '피자의 아침'은 국내 연예인 14명이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유명 연예인 가운데 상당수가 에이즈 감염자인 듯한 뉘앙스를 강하게 풍겼다. 하지만 문화방송은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소문만 부풀리는 결과를 낳았고 이런 식의 보도를 공영방송이 해야하느냐는 비판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 여파로 성직자 10명이 에이즈 감염자라는 보도도 매스컴들이 다루는 등 일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흥미 위주의 보도가 잇따랐다.

8월에는 국내 프로축구 입단을 위한 브라질 축구선수의 신체검사에서 에이즈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소동이 벌어졌다. 보도의 핵심은 구단 신체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여 충격을 주었다는 것과 현재 활동중인 외국인 선수들은 건강진단서를 제출한 뒤 취업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에이즈 감염자는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보도 내용 가운데에서도 엉터리가 많다. 에이즈 감염자는 세계적인 프로농구 스타로 자신의 감염 사실을 공개한 매직 존슨에서 보듯이 정상인과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있으며 프로선수 생활을 할 수 있다. 에이즈 감염자는 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인권유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운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피해야 하겠지만. 따라서 운동 선수 가운데 에이즈 양성반응자가 나왔다고 해서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왜곡된 보도이며 신체검사를 한번 받은 사람은 모두 감염자가 아니다라고 보도하는 것은 명백한 오보이다. 에이즈는 항체 미형성기간이 꽤 오래 되기 때문에 신체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다고 해서 100% 에이즈 감염자가 아닌 것은 아니다.

언론인들의 무지가 오보를 내기도 한다. ㅁ일보 8월21일자에는 '음베키 남아공대통령 피소위기, 에이즈 백신 유아에 공급거부'라는 제목의 외신이 보도됐다. 기사 내용에는 아지도티미딘 등 에이즈치료제를 임산부와 유아에게 공급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내용인데 제목에는 난데없이 백신으로 둔갑했다. 편집기자가 백신과 치료제를 구분하지 못해 잘못하면 에이즈백신이 개발돼 상용화된 것으로 독자들이 오해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10월18일자에는 여러 신문들이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의 자료를 인용해 외국인 에이즈 환자 117명이 강제추방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기사 내용과 제목에 등장하는 환자는 사실 감염자이다.

이런 오보와 왜곡보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언론에 대한 시민단체나 일부 국민들의 감시와 언론 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 언론의 오보나 왜곡보도가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것을 언론인들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 에이즈는 단순한 바이러스 전염병이 아니다. 이 병은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패닉을 불러일으키며 사회적 편견을 자아내고 있는 질병이어서 언론은 그 어느 질병보다도 다루는 태도가 신중해야 하고 정확해야 한다.

호기심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에이즈 퇴치를 위해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언론인들이 에이즈 보도를 할 때에는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것이라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